



2006. 4. 7.

사우디의 식품 시장 동향

목차

1. 사우디의 식품 시장 개요
2. 사우디의 식품 시장 동향

내용문의

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출통상팀

(02-2194-7453, shinilgi@khidi.or.kr)

□ 사우디의 식품 시장개요

- 사우디 식료품 시장은 50억불로 중동지역의(터키, 이스라엘 포함) 14%를 점유하고 있음
 - 사우디는 2004년 기준 1인당 식품소비규모 545.8달러, 1인당 대형소매점 판매규모 122.5달러 수준임
 - 사우디는 인구증가율이 높아(3.4% 내외) 식료품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
- 사우디 농업시장은 IT, 건설 플랜트와 함께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산업군으로 지난 30년간 매년 8.2%의 고도성장을 통해 100억불 규모로 성장했음
 - 사우디정부는 자국 농업발전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어 향후 식품류의 자급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
 - 특히 밀 생산량이 높아 해외로 수출하고 있으며, 수산시장도 확대되는 추세임
 - 하지만, 현재까지는 식품류의 해외의존도가 다소 높은 상황임
 - 축산 부문관련, 가금 소비량은 세계 10위로 소비량의 25%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, 기타 소는 33만 1000마리(1999년 대비 18.2% 증가)를 사육하고 있음
 - 농업분야 종사자는 2004년 기준 58만명으로 연평균 3.4%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, 자국민화율은 48%임
- 아시아국가에서 수출이 유망한 식품류는 라면 등 가공식품 및 인삼 관련 제품임
 - 아시아국가와 사우디간의 거리상의 식품으로 인해 수출가능한 제품은 가공제품 및 인삼 관련 제품으로 한정됨
 - 최근 새우 등 일부 수산물이 수출되고 있으나, 그 규모는 미미함
 - 사우디는 자국, 혹은 인근 국으로부터 대부분의 식료품을 수입하고 있음

□ 사우디의 식품 시장동향

○ 수요동향

- 사우디 정부는 자국내 식품산업 보호 및 농업발전 정책을 가동하고 있으나, 매년 수입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임
- 사우디 정부는 자국 식품시장 보호를 위해 수육류, 가금류, 달걀, 설탕, 마카로니, 유아용 영양식품 등에 고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며, 농업발전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음
- 하지만, 급격한 인구증가, 농업용수 및 농지 부족, 고온 건조한 기후로 인해 수입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
- 사우디 낙농업 시장은 현지 몇몇 기업이 시장점유율을 놓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음
- 사우디 낙농업 진출 현지기업은 Al Marai, Arla Foods, Al-Safi-Danone, Saudia Dairy Foodstuff Company(SADAFSCO) 등이 있으며, SADAFSCO가 가장 높은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음
- 낙농업 생산제품은 주로 주스, 드링크류에 첨가제로 활용되고 있으며, 연간 1인당 소비량은 50킬로그램임
- 수육처리, 소프트 드링크류 생산, 빵, 비스킷, 사탕, 아이스크림 관련 시장은 최근 급속히 발전했으며, 자국내 식품 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
- 동 품목은 무관세 거래가 가능한 GCC 국가 간에 활발히 거래되고 있음
- 동 품목 관련, 현지 진출 해외기업은 Kraft/General Foods, Del Monte, Nestle, Bestfoods, Arla Foods, Danone Group, PepsiCo, Coca Cola 등이 있음
- 사우디는 젊은 층의 소비인구가 많고 고온 건조한 기후로 인해 소프트 드링크류의 소비량이 높은 것이 특징임

(단위 : 백만불)

구 분	2001	2002	2003	2004	2005 (전망치)	2006 (전망치)
소프트 드링크류 판매량	1756.9	1849.4	1946.7	2063.5	2187.3	2340.4

(자료원 : BMI)

- 사우디는 음주가 불가한 지역으로 커피 및 각종 차를 자주마시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으며, 이와 관련된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임
- 사우디에는 녹차, 과일 등 향음료가 대중화되어 있으며 커피소비량이 높음
- 주요 제조기업으로는 Tea Factory, AMS Bae노두 & Co.가 있으며, 현지 진출 해외 기업은 Nestle가 있음
- 커피 및 차의 소비량은 다음의 표와 같음

(단위 : 백만불)

구 분	2001	2002	2003	2004	2005 (전망치)	2006 (전망치)
커피 판매량	187.7	191.5	195.3	199.2	203.3	207.3
차 판매량	134.1	136.8	139.5	142.3	145.2	148.1

(자료원 : BMI)

- 라면 수요동향
- 사우디는 70, 80년대 이후 교민 수가 급감해 현재 1,000명 수준이나, 사우디 거주민의 1/3이 외국인이며, 동남아시아 출신비율이 높아 라면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
- 현재는 일본산 라면제품의 시장유통 비율이 높은 수준이며, 아국제품의 수출이 가능한 품목이나, 목표 소비층을 교민보다는 현지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전략이 요구됨
- 라면 수입통계 (HS 코드 : 190230, 관세율 : 5%)

국가명	2002년도	2003년도	2004년도	증감율(%)	시장점유율(%)
일본	195	0	421	-	25
미국	510	150	0	-100	0
아랍에미리트	0	95	238	150	14
시리아	0	0	228	-	14
프랑스	0	106	0	-100	0
한국	0	0	168	-	10
기타국가	446	377	610	62	37
합계	1,152	728	1,665	129	100

(자료원 : 사우디 통계청)

－ 인삼류 수요동향

- 사우디는 고온 건조한 기후로 인해 인삼제품을 제조하고 있지 않으며,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
- 현지 인삼 제품은 일부 한정된 마켓 채널을 통해 유통되고 있으며, 일부 현지인 및 외국인 외에는 인삼의 효능을 인지하고 있지 못함
- 하지만, 인삼제품을 경험한 현지 남성은 지속적으로 섭취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어 향후 마케팅 및 유통채널 확보 여하에 따라 수출가능성이 높은 분야임
- 현지 시장에서는 아국 인삼제품의 품질은 좋으나, 가격이 높은 것으로 인지되어 있음
- 현지에 유통되고 있는 인삼제품은 인삼근, 인삼즙, 인삼차, 인삼분말, 인삼첨가 음료 등이며, 주요수입국은 시리아, 중국, 대만, 태국, 프랑스, 한국임
- 마켓 조사결과, 아국의 로얄젤리 분말, 태국의 인삼분말 및 인삼드링크, 프랑스의 Arco Pharma 등의 브랜드가 진출해 있다

· 인삼차 (Other medical Extracts) 수입통계 (HS 코드 : 130219, 관세율 : 5%)

국가명	2004년도	시장점유율(%)
스위스	3,642	89
독일	257	6
기타국가	204	5
합계	4,103	100

* HS 코드 13021920, 인삼차(Ginseng extract)는 수입통계 부재

· 인삼 수입통계 (HS 코드 : 121120, 관세율 : 5%)

국가명	2001년도	2002년도	2003년도	증감율(%)	시장점유율(%)
시리아	342	386	300	-22	91
기타국가	60	59	29	-51	9
합계	402	445	328.8	-26	100

(자료원 : 사우디 통계청)

- 식품류 향후 시장전망

- 사우디는 젊은 층의 인구증가율이 높아(3% 이상) 전체 GDP 대비 식품 소비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전망
- 아울러, 요리하거나 섭취하기 용이한 식품류의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

* 현행 현지인은 신선한 제품을 섭취하려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어 캔종류 제품의 소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

(단위 : 백만불)

구 분	2001	2002	2003	2004	2005 (전망치)	2006 (전망치)
식품소비량	12,465	12,813	13,069	13,644	14,231	14,715
식품에 대한 소비비율 (%, 1가정 전체 지출 규모대 식품 소비 비율)	25.3	25	24.7	24.5	24.3	24

(자료원 : BMI)

○ 유통구조

- 사우디는 현지 에이전트의 역할이 다대하며, 정부에서도 자국 무역업 보호를 위해 에이전트 제도를 적극 지원하고 있음
- 사우디로 수출되는 대부분의 품목은 다음 그림과 같이 현지 에이전트에 의해 시장에 유통되며, 식품류도 통상 유사한 형태로 유통됨



- 단, 식품류의 경우 현지 대형 하이퍼마켓을 통해 유통되는 비율이 높으며, 이 경우 직접 제조업체로부터 수입하는 경우도 있음

